

한-몽골 민자회의 출장 보고서

2012. 07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장자 : 김 정 욱 민간투자지원실장
정 민 웅 전문위원

I. 출장개요

1. 출장 참가자

□ KDI : 김정욱 민간투자지원실장, 정민웅 전문위원

2. 출장 기간 및 일정

□ 2012. 07. 08(일) ~ 2012. 07. 12(목) (3박5일)

일 시		일 정	비 고
7.8일 (일)	19:50 ~ 22:20	○ 인천공항 출발(KE867) ⇨ 울란바토르 도착	
7.9일 (월)	오전	○ 한국-몽골 민자회의 개최 (몽골 국유재산관리위원회 vs. 기재부)	D. BAILIKHUU 자문관 등 5명
	오후	○ 몽골 금융감독원 방문	KHERLEN.G 부위원장
		○ 몽골 중앙은행 방문	B.LKHAGVASUREN 감독국장
		○ 몽골 재무부 방문	Batbayar 경제금융정책국장 등
		○ 몽골 국가개발혁신위원회 방문	ARVINBAYAR Baatar 국장 등
7.10일 (화)	오전	○ 몽골 주한 대사관 방문	김동주 상무관, 최재하 참사관 등
		○ 몽골개발은행 방문	김장진 CEO 등
	오후	○ 재몽골 한인상공회 만찬 참석	박호선 회장 등
7.11일 (수)	23:50 ~ 04:50	○ 울란바토르 출발(KE868) ⇨ 인천공항 도착	
7.12일 (목)			

3. 출장 목적

- 몽골은 세계 10위의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부족과 취약한 인프라 여건으로 1차 산업인 광업을 포함하여 2차 산업인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경제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가 대체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임.
- 그 결과 몽골정부는 그동안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던 몽골의 열악한 인프라 시설 확충을 경제성장의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취약한 정부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게 되었음.
- '10. 7월 기획재정부와 몽골정부간 민간투자사업 상호협력 MOU 체결이후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경험을 몽골정부와 공유하고 국내기업이 몽골 PPP사업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함.

II. 주요 조사·면담내용

1. State Property Committee, 몽골 중앙은행, 몽골재무부

☐ 방문일시 : 2012년 7월 9일(월)

☐ 면담자

부처	소속 및 직급	성명
State Property Committee	Adviser	D. BAILIKHUU
	MLAS Economics Head of Administration Department	Lkhagva GANBAT
Financial Regulatory Commission of Mongolia	Commissioner & Vice Chairman	KHERLEN. G
Development Bank of Mongolia	Director	박영배
	CEO	김장진
The Bank of Mongolia	Director General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B. LKHAGVASUREN
Nation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Committee	Head of Private Sector and Innovation Policy Division	ARVINBAYAR Baatar
Ministry of Finance	Head of Financing, Accounting and Reporting Division	ARIUNSANAA Tseyen-Oidov
	Acting Directo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Department	GANSUKH Ragchaa
	Development Financing Cooperation Department	Battseveen Enkhmaa

가. 몽골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향 및 계획

- ☐ 한국 몽골정부간 MOU체결이후 한국 몽골 민자 협력방안을 논의함.
- ☐ 몽골은 풍부한 광물자원 수출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발전 설비·교통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
 - * ('11년) 17.3%, ('12년1/4분기) 16.7%
 - 몽골정부는 향후 10년간 SOC 건설을 위해 80~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 ☐ 그러나 이를 정부재정으로만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몽골 정부는 민자 사업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 추진 중
 - 몽골은 '10.3월 민간투자법(Concession Law)을 제정하였으며, 3년째 KSP 사업을 통해 한국의 민자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음.
 - * 현재 몽골은 KSP 중점지원대상('12년 6억원 배정) 국가이며, 올해는 민자사업 리스크관리에 대해 정책자문 예정
- ☐ 기획재정부와는 민자협력 MOU를 체결('10.7월)
 - 몽골 민자담당 부서에서는 한국어에 능통한 직원(총 5명중 2명)을 채용하여 한국의 민자제도 관련 규정 등을 적극 활용
- ☐ 몽골은 금년 들어 석탄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을 민자방식(BOT)으로 본격 추진중이며,
 - * 시설용량 450MW, 총사업비 약 15억불 규모로서 '13년 착공, '16년 하반기 운영개시 예정
 - 포스코에너지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 포스코(30%), 프랑스 GDF수에즈(30%), 일본 소지쓰상사(30%), 몽골 뉴콤그룹(10%)
- ☐ 민자방식으로 추진중인 철도건설사업*에도 국내 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예비제안서를 몽골정부에 제출한 상황
 - * '15년까지 총길이 5,500km의 광산연계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1단계

(1,100km)는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전망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롯데건설 등 21개 국내 건설사로 구성

□ 또한 몽골정부는 주택10만호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 사업도 민자방식으로 추진할 예정

* 울란바토르 Buyant-Ukhua district에 1,764가구 규모사업 우선 추진
** 석유정제시설, 시멘트 플랜트, 구리제련플랜트 등으로 구성

○ 자금은 한국 산업은행과 몽골이 5:5 지분으로 경영하고 있는 몽골개발은행에서 편당할 계획

2 몽골개발은행(DBM, Development Bank of Mongolia) 방문

가. 몽골개발은행의 소개

□ 몽골개발은행 설립배경

- 몽골정부는 개발은행을 운용한 경험이 없어 2010년 이전까지 일본개발은행에 외부 위탁운영중이었음
- 2010년 은행 위탁운영 외부공개경쟁 입찰에 한국산업은행이 참여하여 낙찰되었으며 현재 몽골정부와 50:50 지분으로 운영 중임.

나. 몽골개발은행의 SOC시설 Financing 계획

1) 몽골 도로 투자계획

- 몽골개발은행은 약 1500km / USD 640Million 규모의 paved road 개보수에 활용할 계획임.
- 특히 12개 주를 통과할 예정이며 개보수 건설은 약 2년이 소요예정



2) Ulaanbaatar 도로 투자계획



- ☐ Ulaanbaatar의 약 48km 도로 신설 및 개보수 작업에 약 USD 93million 규모의 재원을 몽골개발은행에서 조달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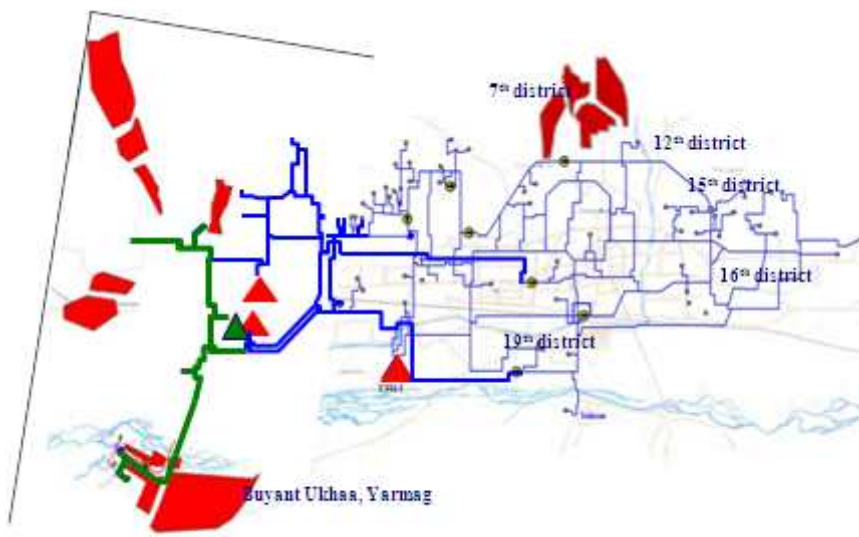
3) 주택 공급계획

- ☐ Ulaanbaatar의 징키스칸 공항 인근 약 176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
- ☐ 토지는 주택 금융공사 (Housing Finance Corporation)에서 제공할 예정임
- ☐ 총투자비는 USD 60million규모임



4) Engineering Utility 공급계획

- 20개 열공급 시설 약 USD 130million 규모
- 10개 열병합발전시설 USD 50million 규모
- 25개 상수 및 하수도 시설 USD 120million규모



5) 철도시설 공급계획

- 몽골 개별광산과 산업단지간 화물시스템 개선을 위한 철도 시설개선에 관한 의회승인이 2010년 이루어져 국가전체 철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새로운 철도는 몽골 동부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며 중국의 북동산단 및 한국, 일본 시장진출을 염두해 둔 노선임.



1st PHASE – 1100 km (USD 2.8 billion)

Dalanzadgad – Tavan tolgoi – Zuumbayan (Sainshand)
 Sainshand – Baruun Urt
 Baruun Urt – Khuut
 Khuut – Choibalsan

2nd PHASE – 900 km (USD 2.3 billion)

Narin Sukhait – Shivee Khuren
 Ukhua Khudag – Gashuun Sukhait
 Khuut – Tamsagbulag – Numrug
 Khuut – Bichigt

3rd PHASE – 3600 km (USD 9.0 billion)

Western Railroad Network

3. 몽골의 민간투자사업 논의 결과

- ☐ 몽골은 아직 민자사업 경험이 전반적으로 부족,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
- ☐ 한국과 몽골간 사업추진 절차상 차이가 나는 부분은 B/C 및 VFM분석 후 Filtering을 통하여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 아직까지 정부지원에 대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의 4개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없이 협약이 체결됨.
- ☐ 그러나 논의결과 몽골정부는 민자사업을 인프라 확충개선을 위한 만병통치약인것처럼 또는 공짜인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정책은 없음.
 - 현재 몽골인구는 전체 240만명 정도여서 도로 및 철도사업의 경우 사용료 징수만 가지고 민간투자자의 수익률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
 - 그러나 건설보조금 또는 광산채굴권을 통한 수익성 보완, 해지시지급금 등 민간사업자의 리스크 완화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음.
- ☐ 한국정부도 완성도 높은 KSP 연구결과를 제공해야 몽골정부도 한국 경제 및 민간투자사업 Knowhow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국 민자사업의 MRG제도 및 높은 사용료, 높은 후순위채 이자율 등 한국정부의 고민사항을 KSP를 통하여 알려줄 필요성이 있음.
- ☐ 한국 기업이 몽골 민간투자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선결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 국내 건설업체, 금융기관 등은 현재 몽골정부가 광산개발권을 부여하고 정부지원제도가 적용된 사업이 전무하기 때문에 몽골 민자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사업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며 광산개발권과 민간투자사업간 조화여부에 따라서 사업추진여부 결정이 필요함.
 - ⇒ 몽골정부 또한 한국기업을 염두해 두고 민자사업을 추진하는것이 아니라 완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협상대상자선정이 이루어지므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것으로 판단됨.